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입암정사(立巖精舍)연구

-〈立巖記〉, 〈文說〉, 〈旅軒說〉을 통해 본 이름 짓기의 건축적 의미에 대하여-

A Study on the Ipamjungsa of Yoehun Chang Hyon-Gwang

박 윤 준

Park Yun-Jun

Abstract

Chang Hyon-Gwang(1554-1637) compared the relationship between Ipam and the 28 places with that of the Polestar and 28 constellations. And he considered the ipam to be the core of the universe.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meaning of christening to the places for him.

I analyzed contents of Chang's <Ipamgi>, <Yoehunseol> and <Munseol> which preserved the traditional view of the site and writings. As a result, christening to the natural places mean that promote the environment for housing. It is a architecture by itself.

키워드 : 입암, 28수, 작명

Keywords : Ipam, 28constellation, Christening

1. 서 론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은 17세기 초 입암(立巖)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 경상도의 한 외진 곳에 은거지를 정하고¹⁾, 그 주변의 산과 시냇물, 골짜기 등 주변 경관에 이름을 짓고 입암정사를 경영하였다. 특히 그는 주위의 자연물을 별자리와 연관시켰는데 입암을 북극성에, 주변 28곳을 28수(宿) 별자리에 견주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건물과 주변의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헌 장현광은 주변의 경물에 이름을 부여하고, 그것을 다시 28이라는 수를 통해 하늘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할만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장현광의 삶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특히 그가 은거했던 입암리의 여러 사물에 붙인 이름을 <입암기>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그런 뒤, 여헌에게 있어 이름 짓고 하늘과 연관시키는 것의 건축적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여헌설>과 <문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 여헌의 생애와 입암기

1) 여헌의 생애²⁾

*정회원,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건축학박사

1) 지금의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여헌의 삶을 검토해 보면 52-3세를 분기점으로 하여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전반부 약 50년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림 1. 입암정사 전경. 일제당과 입암, 기여암 계구대, 소르봉 등이 보인다.

8세 때 아버지 상을 당하여 편모슬하에서 자라났고, 26세에 뒤늦게 결혼하였으나 6년 만에 아내와 사별한다. 37세 때는 재혼하였지만 이듬해에 어머니 상을 당하였다. 그 몇 달 뒤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부득이 상복을 싸들고 금오산에 피신해야 했으며, 난리통에 집이 다 허물어지고 조상의 신주를 망실하였을 뿐 아니라, 변변한 거처조차 없었다. 이후 50여세가 되기까지 여헌의 삶은 가정

2) 여헌의 생애에 관해서는, 황위주 「旅軒 張顯光의 삶과 文學」, 『善州文化研究叢書II』 금오공과대학 선주문화연구소, 1994. 참조.

적으로 매우 불우했으며, 전쟁의 와중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남으로는 가야산 성주에서 북으로는 봉화의 도심촌에 이르기까지 친구와 친척, 제자들의 집을 전전하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다.

여헌의 삶이 점차 안정기에 접어든 것은 52-3세를 전후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52세 때는 생질 노경임이 원회당을 지어주었고 53세 때는 문인 장경우가 인동의 옛 집터에 모원당이라는 새 집을 지어주었다. 또 그해에 정사진도 입암에 만활당이라는 집을 지어 그곳에 와서 살기를 청하였다. 이 때부터 인동과 입암을 거점으로 삶의 터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 같고 닭은 학문도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삶이 안정되고 학문이 깊어지자 수많은 벼슬이 제수되었는데, 그 횟수가 82세에 이르기까지 이십여 차례나 된다. 그러나 그는 거의 한번도 제대로 부임한 적이 없고 부득이 관직에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쳐도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여헌이 관직을 꺼려한 것은 당시의 혼란상과도 관련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몰두해온 학문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주된 이유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미 18세 때에 <우주요괄첩(于宙要括帖)>이라는 책을 저술하고는 “능히 천하제일의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천하제일의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성리학을 탐구하여 큰 학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직접 피력하기도 하였다. 여헌의 학문적 열정은 50대에 와서 개인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그의 대표적인 저술과 문필활동으로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듯 여헌 장현광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어려운 변화와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80평생을 철저한 학자적 삶으로 일관하여 조선 중기 재야선비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³⁾

3) 여헌 장현광의 연보

- 자(子)는 덕회(德晦), 호(號)는 여헌(旅軒), 덕녕부윤(德寧府尹) 안세(安世)의 8세손, 증(贈) 이조판서(吏曹判書) 열(烈)의 자(子)이다.
- 1554 명종9년(1세) : 1월 22일 미시에 인동부 인의방 출생
- 1561 명종16년(8세) : 아버지의 상을 당함
- 1562 명종17년(9세) : 일선의 상사 노수성에게 취학
- 1564 명종19년(11세) : 집안어른 상사 장순에게 취학
- 1569 선조2년(16세) : 스승 장순의 책상에 성리대전 황극편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얻어 공부하여 이때부터 혼자 깊이 학문에 침잠함
- 1571 선조4년(18세) : <우주요괄첩>지음
- 1579 선조12년(26세) : 증(贈)판서(判書) 정괄(鄭适)의 딸 청주 정씨와 결혼
- 1583 선조16년(30세) : 향시 別擧에 합격
- 1585 선조18년(32세) : 7월, 부인 정씨가 세상을 떠남
- 1591 선조24년(38세) : 10월, 어머니 상을 당함
- 1592 선조25년(39세) 임진란 발발. 4월에 금오산으로 피란. 나라중신주를 보존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은밀한 곳에 가매장해 두었으나 그 뒤 모두 망실함
- 1596 선조29년(43세) : 허락 없이 관직을 버렸다 하여 금부에 소환. 곧 풀려난 뒤 제자 정사진 형제가 영양의 입암에 거처를 마련해 주어 그곳에 들어감
- 1597 선조30년(44세) : 정유재란을 피해 은거하라는 정사진 형제의 권유에 따라 청산 유곡으로 들어감. <여산록(旅山錄)>과 <여헌설(旅軒說)> 지음
- 1600 선조33년(47세) : 봄에 입암에 유람하여 동(洞), 대(臺),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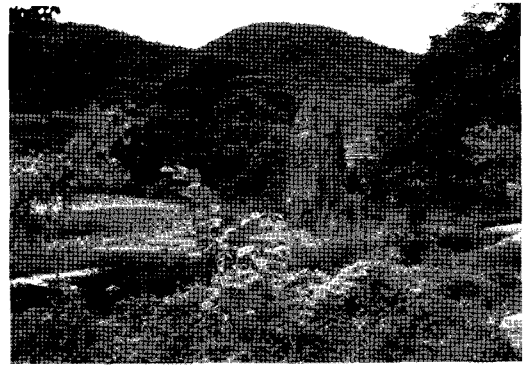


그림 2. 입암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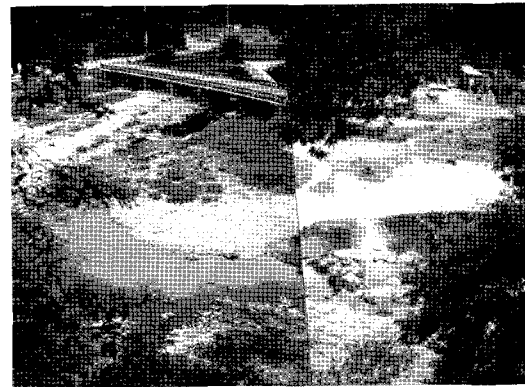


그림 3. 일제당 아래에 흐르는 입암천

2) 입암기(立巖記)

장현광은 입암리에 은거하면서 주변 경관에 이름을 짓고 그 이름들의 뜻을 설명한 <입암기>를 저술하게 된다.

입암리 주변은 옛날에는 땅이 척박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었던 곳이었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이곳에 네 명의 선비가 은거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바위의 생김새가 기이하다 하여 장현광에게 구경시키고, 그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이름을 붙여 탐상하는 장소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여헌이 “이미 이 바위와 산, 시냇물과 들의 아름다운 경치를 얻었는데, 만일 깃들여 쉬고 거처하며 학문을 닦을 집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또 편안히 머물 곳이 없을 것이다”⁴⁾고 하

(潭), 봉(峯), 평(嶺)의 이름을 지음

- 1606 선조39년(53세) : 가을에 변방의 일이 걱정되어 정사진이 입암에 집을 짓고 이거하기를 청하니 만활당이라 명명하고 거주함
- 1608 선조41년(55세) : 선조가 승하함. 이때 오산서원에 있다가 입암으로 들어감. 합천군수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음. <역학도설(易學圖說)>지음
- 1636 인조14년(83세) : 청나라 침입으로 임금에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키게 함
- 1637 인조15년(84세) : 삼전도의 항복 소식을 듣고 세상을 버릴 생각으로 선영에 인사하고 3월 입암으로 들어감. 여름에 또 암(巖)의 이름을 정함. 9월 7일 졸
- 1655 효종6년(사후18년) :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됨
- 1657 효종8년(사후20년) : 영의정에 추증되어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받음

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여헌집II』, pp.79-80, 1994.

여 네 친구가 서재(書齋)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바위(입암) 동쪽 뒤편에 터를 마련하고 이름 짓기를 우란재(友蘭齋)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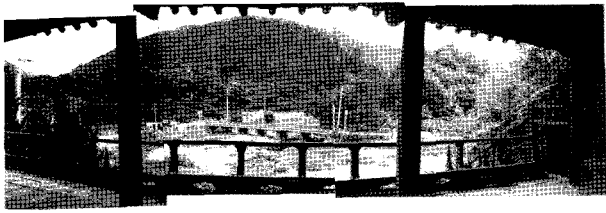


그림 4. 일제당에 올라 앞 경치를 봄

입암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입암과 28개소의 명칭과 위치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 1. 입암과 28곳의 명칭 및 의미

번호	명칭	모습	의미
0	입암 ⁵⁾ 立巖	선바위	공자의 모습
1	우란재 ⁶⁾ 友蘭齋	건물	군자의 모습
2	기여암 起予巖	바위	정신이 엄숙하고 상패하며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원대하여 자연히 흥함
3	계구대 戒懼臺	평평한 바위	항상 깊은 못에 입한 듯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
4	구인봉 九仞峯	산봉우리	공자의 산을 만드는 고사 비유
5	토월봉 吐月峯	산봉우리	봉우리가 둥근달을 토해내는 듯 함
6	소로잠 小魯岑	산봉우리	공자가 동산에 오르고 태산에 오른 놀이 비유
7	산지령 産芝嶺	고개	상산에 비유하여 그곳에 온거한 네 노인을 숭상함
8	함취령 含輝嶺	고개	군자가 덕을 쌓아 순수함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9	정운령 停雲嶺	고개	변화무상하고 가고 오는 흔적이 없는 구름
10	적진령 隔塵嶺	고개	세상과 멀리 떨어진 듯함
11	경운 耕雲	돌	산야에 농사짓던 南陽, 臥龍, 管仲, 樂毅와 자신을 비유
12	야연 惹煙	숲	시상을 떠올리게 하는 푸른 연기 한 가닥
13	초은 招隱	골짜기	벼슬길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김
14	심진 尋眞	골짜기	참된 운운자를 그리워하나 만나 볼 수 없음
15	채약 採藥	골짜기	약물이 많이 생산되는 곳
16	경심대 鏡心臺	돌	돌에 앉아 못을 굽어보는 곳
17	수어연 數魚淵	못	물고기가 오가는 연못
18	피세대 避世臺	평평한 바위	아늑하고 조용하여 외인과 접하지 아니함
19	상엄대 尙嚴臺	바위	엄자들의 절개를 숭상
20	욕학연 浴鶴淵	못	水石의 기이하고 깨끗함을 표현 마치 그림 속에 있어 진면목이 아닌 듯함
21	화리대 畫裏臺	바위	북쪽 산에서 흐르는 물이 험처 지는 곳
22	합류대 合流臺	바위	강대공 연상
23	조월 釣月	여울	巢父와 許由를 따름
24	세이담 洗耳潭	못	巢父와 許由를 따름
25	향옥 響玉	돌다리	다리를 밟으면 옥소리 같은 물

			소리가 들림
26	답태 踏苔	돌다리	물바닥에 파란 이끼가 잘 자라서 그윽한 흥취가 있음
27	물벽 勿霧	우물	물건을 윤택하게 하는 공효가 넓음
28	상두석 象斗石	돌7개	북두칠성은 밝은 돌 일곱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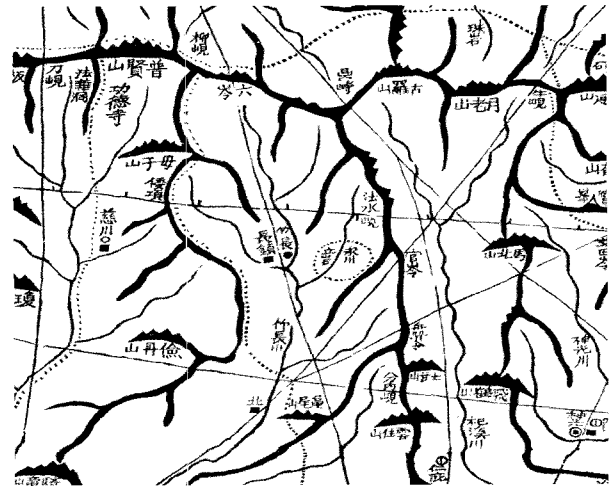


그림 5.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입암

표1에서와 같이 장현광은 입암과 그 주변의 28곳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28곳을 택해 이름 붙인 이유를 하늘의 별자리와 연관지어 설명해 놓았다.

“이상 이름을 얻은 것이 스물여덟 곳인데 이것이 각자 좋은 경치가 있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이름을 얻은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그러나 한 입암의 기이함이 있지 않다면 스물여덟 곳이 스스로 좋은 경치를 자랑하지 못하여, 심상한 가운데의 구름과 골짜기, 봉우리와 수석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그 누가 명칭을 붙여 일컫겠는가. 그렇다면 스물여덟 곳의 좋은 경치는 입암을 얻어 드러나고, 입암의 빼어난 기이함은 스물여덟 곳의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풍부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계구대가 있지 않다면 진실로 빛내어 스물여덟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드

5) 여헌집을 보면 입암은 북극성에 비유되고 있고 28개의 사물이 북극성을 둘러싸고 있는 28수(宿)와 또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암을 제외한 28곳에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입암기에서 자연물은 27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연물이 아닌 우란재를 묶어 28개 숫자를 맞추고 있다. 그런데 입암기 앞부분에, 입암 뒤의 형세를 높이는 바위가 있어 이를 운운암(雲屯巖)이라 한 부분이 있다. 즉, 여헌이 이룩지은 28곳이 자연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운운암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인공물이지만 자연물과 함께 할 세계를 포함한 발상이라면 의당 우란재가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노계집 입암별곡에는 “.....일제당 올라앉아 이십 팔경 도라 보니, 탁입암(卓立巖) 삼겨나서 계구대 도여시니.....”라 하여 28경에 입암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운운암에 대한 내용은 없다. 노계집의 이러한 양상은 일제당(우란재의 나중 이름)을 28경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6) 입암정사이며 후에 일제당(日躋堂)이라 함.

러내어 입암의 빼어난 기이함을 돕지 못했을 것이니, 이는 입암이 있으면 계구대가 없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는 마치 북극성이 28수의 높이는 바가 되고 28수가 빙 둘러 향하지 않으면 북극성이 또한 홀로 높음이 될 수 없으며, 28수는 비록 각자의 자리가 있으나 한 북극성의 높음이 있지 않으면 또한 빙 둘러 향할 곳이 없는 것과 같다”7)

즉, 입암을 북극성에 비유하고 다른 28곳의 명칭을 하늘의 28수 별자리에 대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시 관료 친문학자들은 천문학의 주요 영역을 역법에 한정짓고 있었지만, 성리학자들의 관심은 더 큰 우주의 해석을 위해 천문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우주론은 여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16세기 이후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자신들이 중국문명의 정통적인 계승자임을 자부하며 성리학의 이론을 심화시키는데 몰두하였다. 여기에는 당연히 주자가 제시한 우주론적 관심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장현광



그림 6. 입암과 주변 28곳의 배치(그림출처: 김동욱, 『조선중기 은거선비의 집터와 별자리의 관계』, 『건축역사연구』 제10권2호 통권2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1)

의 <입암기>는 그것을 실제 조선의 땅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8)

물론 장현광은 입암과 주변 28곳을 북극성과 28수에 관련지을 때 별자리의 배치관계나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대응시키지는 않은 듯하다. 다만 계구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28수에 대응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입암기의 내용 중 계구대에 관한 설명은 다른 사물들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글에 이어서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한 각(角)수가 28수의 첫 번째 별이 되어서 이 각수가 제자리를 얻은 뒤에야 나머지 27개의 별이 차례를 따라 진열하니, 이는 입암이 스물 여덟 곳의 중주가 되고 계구대가 또 스물 일곱 곳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유이다”9)라 한데서 계구대는 28수의 각수(角宿)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별자리의 기능과 의미를 <천문류초(天文類抄)>10)의 기록에서 찾아보면 그 관계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천문류초>에는 28수 중 각수가 가장 먼저 설명되어 있는데, 그 설명의 시작이 “각(角)은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하는 등 조화를 주관한다”11)고 한 대목을 통해 계구대와 내용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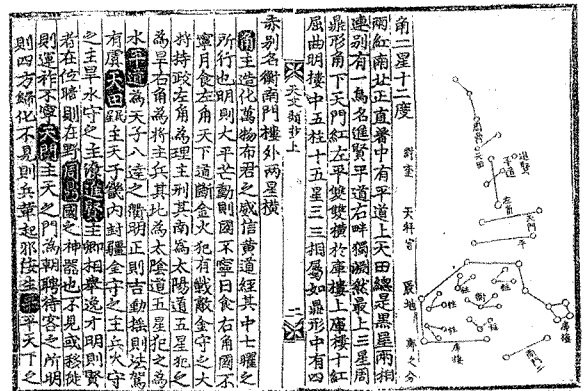


그림 7. 천문류초

상두석(象斗石)의 경우에도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북두칠성(北斗七星)에 비유해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북두칠성은 28수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아니고 북극성과 마찬가지로 자미원(紫薇垣)에 속한 별자리이다. 28수 중 두수(斗宿)에는 북두칠성과 닮은 별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섯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여현이 “입암의 곁에 돌이 일곱 개가 서 있는데”라고 한 것

8) 입암정사와 별자리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김동욱, 『조선중기 은거선비의 집터와 별자리의 관계』, 『건축역사연구』 제10권2호 통권 2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1. 참조.

9) 민족문화추진회, op. cit., p.89.

10)五星의 通軌를 계산한 책이다. 서문 발문이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世宗朝 觀象監에서 활자판으로 인행한 대형의 책으로, 그해 관찰감에 있던 이순지, 김담 등이 편성하였다. 천문류초는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권은 삼원(三垣)과 28수 등 항성에 관한 내용이고, 하권은 하늘과 땅에 대한 개괄을 비롯하여, 항성이 아닌 별과 천지의 조화로 발생하는 기운 등을 상설하고 있다.

11) “角：主造化萬物 布君之威信”, 天文類抄 上, 二.

7) 민족문화추진회, op. cit., pp.88-89.

으로 보아 상두석은 28수의 두수가 아닌 자미원의 북두 칠성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여헌이 입암 주위의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28수 별자리와 연관시킨 것은 개별적인 일대일 대응이라기보다는 그 전체로서 지상의 의미를 우주와 연관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살펴본 바대로, 비록 구체적인 배치나 물리적인 위치관계까지 연관짓지는 않았지만 입암 주변 경관을 북극성과 28수 별자리에 대비시킨 것은 여헌의 성리학적 천문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III. 여헌의 사상과 작명의 건축적 의미

이제 장현광의 작명(作名)의 의미가 나타나 있는 <여헌설(旅軒說)>과 <문설(文說)>을 통해 이름 짓기의 건축적 의미를 고찰하도록 한다.

장현광은 40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헌이라는 호를 갖게 되는 바, 여헌은 그 이름의 뜻을 <여헌설>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여헌은 글을 쓰거나 사물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매우 신중했는데, 여헌설에서도 '여헌'의 뜻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호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이 현호(軒號)를 갖게 된 것은 중고(中古)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전에는 인문(人文)이 어둡고 인륜(人倫)이 드러나지 못하여 사람마다 서로 소리를 듣고 응답하며 얼굴을 보고 식별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풍기(風氣)가 차츰 개발되어 인문이 밝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이에 성인(聖人)이 물건에 따라 글자를 만들고 사람에 따라 이름을 지은 뒤에야 가르침을 베풀 수 있고 일을 행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이다. 그 후에 내려와서는 인문과 인륜이 더욱 드러나게 되어 존비(尊卑)의 등급을 밝히지 않을 수 없고 장유(長幼)의 차례를 밝히지 않을 수 없어 이른바 자(子)라는 것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더욱 후세에 내려와서는 세사의 도가 밝지 못하고 다스려지는 날이 항상 적었다. 그리하여 천하에 기이한 재주를 품고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선비가 만약 세상에 나와 뜻을 펴지 못하면 물러나서 산림(山林)과 강호(江湖) 사이에 흠어져 사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귀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속인(俗人)들의 입에 자신의 자를 올리고 싶지 않았다. 이들은 이름과 자의 밖으로 스스로 초탈하고 경쟁이 없는 땅에서 호(號)를 구하여, 혹은 사는 집의 이름을 따르고 혹은 거처하는 땅과 강호와 지택(池澤), 계산(溪山)과 곡동(谷洞) 등 마음에 좋아하고 몸에 붙여 있는 모든 물건 중에 취하는 것을 따라 호를 붙였으니, 이것을 총칭하여 현호(軒號)라 하였다.”¹²⁾고 밝혀 놓았다.

이어서 자신의 호인 '여헌(旅軒)'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현광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사방에 돌아다니며 배웠으며, 임진란 등 수난 사회적 혼란 속에 집은 불타 터만 남아 고향으로 돌아가

지 못하고 한 해에도 서너 번 씩 동서남북 정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스스로 나그네라 한 것이었다. 또 “한 헌(軒)의 의미는 헌이 일정한 곳이 없고 또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旅)라고 헌을 이름한 것이다. 즉 비단 당우를 헌으로 삼을 뿐 아니라 시원한 그늘과 푸른 나무 아래에 이르러도 또한 헌인 것이다. 그리하여 헌이 있는 곳이 일정한 한 지역이 아니나 합하여 한 몸의 헌이 되고, 헌에 머무는 것이 일정한 한 때가 아니나 쌓여서 일생의 헌이 되니, 내가 헌으로 여기는 것은 일반인의 헌과는 다르다. 즉, 없으면서도 무(無)에 빠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유(有)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내가 항상 나그네가 되고 나그네이면서도 반드시 헌이 있는 것이다”¹³⁾라고 하였다.

즉, 헌(軒)의 이름을 여(旅)라고 지음으로써 헌이 갖는 공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지만 모든 곳을 헌으로 생각함으로써 부평초 같은 방랑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현광은 삶을 헌에 비유하여 정처 없던 처지를 오히려 모든 곳, 모든 시간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다는 생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현광은 나아가 여(旅)의 의미로는 개인의 삶을 넘어 다시 천지와 관련시키고 있다.

“천지를 고찰한다면, 천지 사이에 붙어사는 모든 물건이 어느 것인들 나그네가 아니겠는가. 천지는 만물의 역려(逆旅, 여관)이다. 그 사이에 태어난 것들이 갑자기 왔다가 죽어가서 가는 자가 지나가고 오는 자가 계속하여 일찍이 한 사람도 천지와 더불어 그 종시(終始)를 하는 자가 없으니, 그렇다면 나그네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의 말을 듣고 혹자가 “나그네가 된 도를 통하여 사람이 된 도를 알았으니, 여헌이 바로 편안한 집의 주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내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 이치가 그러함을 말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여헌의 뜻은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¹⁴⁾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그는 호를 지음에 있어 매우 엄격하면서도 끝내는 그것을 개인의 삶의 차원을 넘어 천지의 본성과 연관지어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주요괄첩>, <역학도설> 등의 저서를 통해 보이듯이 여헌의 성리학이 천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암정사를 경영하기 위해 수십 년간에 걸쳐 주변사물에 이름을 짓는 것은 집 짓고 경영하는 것에 대한 여헌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다.

한편 그의 <문설>에는 글쓰기의 의미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준다.

그는 '문(文)'이란 도가 일정한 형상으로 구현되어 그 자체의 질서와 조리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천도(天道)가 하늘에 구현되어 나타난 현상이

12) 민족문화추진회, op. cit., p.13-14

13) Ibid. pp.17-19

14) Ibid. p.21이하 참조.

천문(天文)이고, 지도(地道)가 땅에 나타난 현상이 지문(地文)이며, 인도(人道)가 사람에게 구현되어 나타난 현상,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가치체계와 제도, 문화 등이 모두 인문(人文)이라 하였다.

이처럼 인문이란 '인도를 세상에 구현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인문의 개념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문지실(文之實)과 문지문(文之文)이 그것이다. 이에 관해 여헌은 "대개 도는 문(文)의 근본이다. 이 도가 덕행(德行)에 드러난 것이 문지실(文之實)이요, 언사로 발현된 것이 문지문(文之文)이다"라 하여 문지실이란 실천행위로서의 문이요, 문지문이란 문자표현으로서의 문임을 밝혔다. 이중 실천 행위로서의 문은 인간의 인의예지의 덕성을 바탕으로 그것을 잘 알고 닦아 실천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유가(儒家)적 도덕규범을 일상생활에 실천하는 것을 문지실로 규정했다.

언어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문자로서의 문지문은 실천 행위로서의 문지실과 표리관계이면서 동시에 문학 등 실제 언어구사 있어서 기초적인 관점이 된다. 그런데 그는 문자로서의 문은 실천행위로서의 문에 결코 우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천행위로서의 문이 전제될 때라야 비로소 문자로서의 문도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문인문보다 문지실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태도를 견지한다.¹⁵⁾

이러한 생각은 그의 문집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글을 쓰고 이름을 지을 때 도(道)에 근거하지 않은 실천적이지 못한 태도에 관해 무척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본 대로 자신의 호를 짓는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대표적인 문학적 저술이라 할 수 있는 입암 주변의 경관을 작품화한 시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즉, 장현광은 입암 주변의 사물들에 이름을 붙일 때, 자연물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에 따른 해석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를 선인들의 고사와 학문하는 자세 등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권중은 여헌의 학문적 특성을 "모든 학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것을 유학의 범주로 일원화(一源化)하는 점,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사업과 목적을 제시하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여헌이 역학(易學)에 심취한 이유를 역(易)이 사물의 이치를 밝혀서 인간의 사업을 성취하게 하는 방책이라고 생각한데에 기인한다고 보았다.¹⁶⁾ 그리고 계속해서 여헌의 관물 태도는 인신과 만물이 일원(一源)의 도(道(理))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주장한다.¹⁷⁾

모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여헌이 제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신의 독자적인 유학사상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삼라만상의 운행을 하나의 원리에 의거해 풀

어가고자 하는 모습은 실제 주변 사물에 대하여 우주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여헌의 이러한 집터 잡기에 있어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우주와 연관시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름짓기에 관해 그가 말하기를 "만물이 어찌 처음에 명칭이 있겠는가. 명칭이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인간이 붙여 준 것인데,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바로 쓰임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오직 이 시내와 산은 깊고 궁벽한 구역이므로 또한 일찍이 명칭이 없었으며, 이미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일찍이 사람이 놓고 감상하는 곳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들이 지금으로부터 비로소 명칭을 주고 영원히 놓고 감상하는 지역으로 삼아 헛되이 버려지는 시내와 돌이 되지 않게 하였으니, 이 또한 이 시내와 돌의 영광이 아니겠는가"¹⁸⁾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말한 지도(地道)가 인간에 의해 천도(天道)와 연관됨으로서 결국 궁극적인 합일을 이루어 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름짓기를 통한 입암정사의 경영은 여헌 장현광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구현된 것이며, 집터를 잡고 주변 자연을 감상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시킨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동양에서의 건축은 공간 만들기 이전에 자리 잡기가 선행되는 것이었다. 집을 지을 때는 무엇보다 입지를 찾는 데 온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은 천지의 상황에서 적당한 자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¹⁹⁾

장현광에 있어 집 지을 자리 즉 터를 잡는 것은 단지 하늘과 땅의 형세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살펴본 바대로 사람이 살 집에 대해서는 인도(人道)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문(人文)이다. 즉 건축의 터 잡기는 천문과 지문을 읽어 자연환경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인문이 구현될 인문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다. 장현광은 이 인문환경의 조성을 위해 주변의 사물들에 이름을 붙여 그 쓰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명의 산천에 이름을 주어 영광되게 하려는 장현광의 애정은 수 백년이 지난 지금, '입암리'라는 지명으로, 주변 각 봉우리의 이름 등으로 남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수 세기를 뛰어 넘어 자신의 존재의미를 상기하게 한다.

조선중기의 성리학자들은 항상, 실증적인 세계를 공부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정신적이고 비가시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었다. 이름을 지어 의미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하고, 천지와 연관시켜 도의 실천을 통한 가치실현은 정사를 경영할 터를 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다.

정사(精舍)는 장수(藏修)와 유식(遊息)을 위한 공간이다. 학문을 통해 수양에 정진하고(장수) 즐기며 휴식함으로써(유식)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건축공

15) 여헌의 '문(文)'에 관한 이론에 관해서는 황위주의 앞의 글 참조.
16) 유권중, 「여헌 장현광의 역학과 성리학의 철학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동양학』 제29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222, 1999.
17) Ibid. p.230.

1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여헌집I』, p.91
19) 서양의 공간만들기와 동양의 자리만들기에 대한 논의는 김성우, 「공간과 천지」, 『건축역사연구』 제14권 4호 통권4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5. 참조.

간이다. 정사의 경영을 구상할 때 그 입지(立地)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인문적 환경은 정사경영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집터를 정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자체로 인문적 건축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헌 장현광의 입암정사와 그의 문집을 통해 건축적 이름짓기의 의미에 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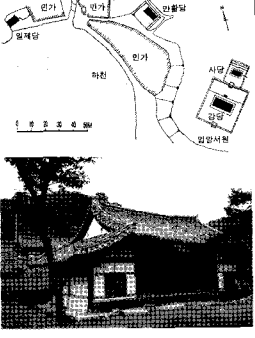



1. 장현광은 <입암기>를 통해 자신의 은거지 주변에 여러 이름을 짓고 그것을 하늘의 별자리에 견주었다. 아울러 입암을 북극성에 대응시켜 자신의 입암이 성리학적 인문의 중심 위치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2. <문설>과 <여헌설>에서는 이름 짓기의 의미를 상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도(人道)의 실현인 인문(人文)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파악하였다.
3. 따라서 이름 없는 자연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경영하는데 있어 인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의 작업이다.
4. 동양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자리만들기라고 할 때 장현광의 집터와 주변에 대한 이름짓기는 그 자체로 이미 인문적 건축이라 할 수 있다.
5. 이러한 장현광의 인문적 건축은 조선시대 선비가 자신의 사상을 건축에 구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을 보여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김문기 역, 『국역노계집』, 도서출판 역락, 1999
2. 김수길, 윤상철 역, 『天文類抄』, 대유학당, 1999
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 수리 보고서』, 1991
4. 민족문화추진회 『旅軒集』, 1991
5.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여헌집 1,2,3,4』, 1991
6. 한국사상연구소 편, 『여헌 장현광의 학문 세계-우주와 인간』, 예문서원, 2004
7. 한국사상연구소 편, 『여헌 장현광의 학문 세계-자연과 인간』, 예문서원, 2006
8. 김동욱, 「조선중기 은거선비의 집터와 별자리의 관계」, 『건축역사연구』 제10권 2호 통권26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1
9. 김성우, 「공간과 천지」, 『건축역사연구』 제14권 4호 통권4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5
10. 유권중, 「旅軒 張顯光의 易學과 성리학의 철학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 『동양학』 제29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11. 황위주, 「旅軒 張顯光의 삶과 文學」, 『善州文化研究叢

부록1 : 여헌 장현광의 입암정사 관련 건축물

표 2. 입암서원의 건물들

명칭	현재 모습	건물의 유래와 형식
입암서원 (立巖書院)		입암서원은 조선 효종8년(1657)에 현재 죽장면 입암리 토월봉(吐月峯) 아래에 창건된 것으로 입진왜란 당시 이 지방에 피난 와서 살다 죽은 문강공 장현광을 봉안하고 지방유림인 동봉(東峯) 권극립(權克立:1554-1637), 우헌(愚軒) 정사상(鄭四象:1563-1623), 윤암(潤庵) 손우남(孫宇男:1564-1623), 수암(守庵) 정사진(鄭四震:1567-1616)을 배향하고 있다. 고종 5년(1868)에 훼손되다 순종 원년(1907)에 묘우(廟宇)가 소실되었다가 1913년에 복원되고 1972년에 묘우를 복원하였다. 입암서원은 목조와가(木造瓦家)의 'ㄱ'자 형으로 그 일대가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주변에 만활당(萬活堂), 일제당(日躋堂)이 있다.
일제당 (日躋堂) ²⁰⁾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기와지붕으로 구성된 일제당은 조선 선조 33년(1600)에 건축되어 장현광, 정사진, 손우남 등이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다. 1629년에는 노삼계(盧三溪) 박인로(朴仁老) 선생이 내유(來遊)하여 입암가 29수와 입암별곡(立岩別曲)을 남기기도 하였다. 1907년 산남의진(山南義陣) 사건으로 왜군이 방화, 소실되었던 것을 1914년 복원하였다. 이 건물의 평면구성을 보면 보간 2칸 중 후열 3칸은 절벽에 의지하여 높은 자연석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앉혀있다. 어간(御間)이 마루이고 양측에 온돌방을 1칸씩 배치하였고 마루 뒷벽에 출입문을 세우고 루(樓)마루를 꾸며서 계자 난간을 돌렸다. 현재 남아 있는 일제당은 과연 건립당시의 모습과 같은 것일까? 그 위치는 또 어떨까? 입암정사 기문에는 "옛터를 다시 닦고 한 모재(茅齋) ²¹⁾ 를 설치하여 머물고 휴식하는 장소로 삼았는데 대청을 두었는 바, 각각 한 칸씩이고 두 방의 북쪽에는 감실을 지어 수백권의 책을 보관할 만 하였으며 앞뒤를 다소 넓혀 여러 화책을 심어놓으니 꽤 볼만하였다" ²²⁾ 고 하였다. 그러니까 원래의 정사는 현재의 일제당과 비교해 볼 때 평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지붕은 기와가 아닌 초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서재내에 설치된 감실이 서쪽에만 들어져 있는 것도 원형과는 다른 모습인 것이다. 또, 입암 오연 장편의 정사(精舍)를 보면 "바위 등지고 작은 집 지어놓으니 시냇물이 앞으로 지나가네. 섬돌은 반석 위에 쌓고 처마는 송백과 가지런해 무더운 여름에는 뭇의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추운 겨울에는 온화한 양기가 들어오네....." ²³⁾ 라고 하여 현재의 일제당 위치가 예전의 입암정사가 있던 곳을 알려준다. 이는 노계 박인노가 지은 입암기 정사에 "초옥 두 세간을 암혈(巖穴)에 부쳐두고....." ²⁴⁾ 라는 대목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만활당 (萬活堂)		정면3칸, 측면 단간의 박공기와 지붕 구조인 만활당은 계류가 굽이쳐 흐르는 언덕 위에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여헌이 입진왜란 때 피난 와서 기거하던 은숙사(隱宿舍)로 사용하던 건물이다. 막돌을 3단 쌓은 축대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주(圓柱)를 세웠다. 삼량가(三樑架)로 된 홀 처마의 굴도리 집이다. 정면 3칸중 어간(御間)은 건면에 올거미 띠장널문을 두 짝 달아서 마루방을 꾸미고 양 협문은 각각 온돌방이며 마루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다. 마루방 뒷벽에는 반침을 마련해 놓았다.
항나무		여헌 장현광이 난리를 피해 이곳에 왔을 때 심은 향나무이다. 현재 입암서원 뜰 안에 있으며 안동권씨 문중 소유로 되어있다. 이 향나무는 높이 25m, 둘레 3.5m로 1500년대에 심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수령에 비해 기운이 험차고 당당한 모습이다. 향리에 은거한 채 성리학적 세계관을 주체적으로 정립하였던 거유(巨儒) 여헌선생의 끈은 심성을 떠올리게 한다.

20) 성스러움과 공경이 날로 진전되어 간다는 뜻
 21) 초가로 만든 서재
 2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여헌집 1,2,3,4』, p.95, 1991.
 2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여헌집 1』, p.47, 1991
 24) 김문기 역, 『국역노계집』, 도서출판 역락, p.189, 1999